

『新경제』를 위한 에너지·資源 政策



朴 在 潤
通商産業部 長官

韓國에너지協議會에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와 국내에너지 부존 자원개발 및 에너지 안정공급 등 에너지자원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에너지분야 관련인사의 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6일 에너지업계 대표 및 관련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通商産業部 朴在潤 長官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는데, 그날 발표된 강연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1. 『新경제』와 世界化

가. 『新경제』의 指向

정부는 '93년 7월 『新경제 5個年計劃』을 집행하기 시작한 이래 재정제도, 금융제도, 경제행정규제 및 경제의식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는 政府의 指示와 統制를 발전메커니즘의 근간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도록 지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經濟發展의 目的에 부합되게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의식도 민주화됨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발전메커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民間主導의 經濟運營이, 80년대 초반에는 經濟自律化가 추구되었으나, 당시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만 民間主導로 운영되거나 자율화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말부터 政治的 民主化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개인의 자유가 과소비, 노사분규 등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新경제』에서는 政府의 指示와 統制 대신에 國民의 參與와 創意가 경제발전 메커니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參與와 創意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參與하고 능동적으로 創意力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參與와 創意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政府의 規制를 緩和하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經濟正義가 확립되어야 한다. 「新경제 5個年計劃」에

서는 規制緩和와 經濟正義 확립을 위해 財政制度, 金融制度, 經濟行政規制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財政改革은 재정의 형평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稅率을 인하하고, 課稅標準을 현실화하며 租稅減免을 축소하고 租稅捕提率을 높이며 재정지출중 인건비, 소득보상적 지출 등 고정적 지출의 비중을 낮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92년에 비해 '94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5%로,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율은 17.3%에서 25%로, 재정지출에서 고정적 지출의 비중은 65.7%에서 59.3%로 개선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公共資金管理基金의 신설, 公企業의 民營化 등이 추진되고 있다.

② 金融改革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의 모든 결정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自律化,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開放化, 그리고 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한 金融節度의 확립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金利自由化,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 정책자금의 축소 등 중요한 金融自律化 措置가 이루어졌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金融實名制를 실시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經濟行政規制改革은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규제방식을 전환하여 정부부문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지이용에서부터 공장설립, 생산, 유통, 수출입 및 가격결정 단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經濟行政規制 중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그러나, 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부문 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는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총 1,469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 중 1,320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을 제정하였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과 토지이용·개발 등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는 각종 제도의 폐지나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直接規制를 間接規制(예: 가격관리)로, 事前的 規制를 事後的 規制(예: 환경)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혁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參與와 創意를 국민의 의식에 직접 호소하는 意識改革運動을 병행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共同體意識을 함양함으로써 직접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창의를 직접 유발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經濟意識改革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經濟意識改革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언론·소비자단체 등의 市民運動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世界化의 意義

지난해 대통령의 『시드니構想』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世界化가 제시되었다. 世界化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발전의 모든 부문에서 世界一流化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해 가는 『地球村化(Globalization)』의 과정에서 우리

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世界一流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新경제』는 대체로 金泳三 大統領 재임기간중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고,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에 世界化는 『新경제』를 통하여 다져진 경제발전의 기초 위에서 보다 더 長期的인 視界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世界一流國家로 도약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世界化를 위해 政府는 教育, 法秩序, 政治와 言論, 行政과 地方, 環境, 文化와 意識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教育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教育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② 法秩序를 世界化하여야 한다.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의 法の 支配가 정착되어야 한다.

③ 政治와 言論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政治의 生産性이 제고되어야 하며, 言論도 社會의 公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④ 行政과 地方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작고 能率的인 政府』, 『똑똑하고 柔軟한 政府』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地方自治制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⑤ 環境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우리의 차세대들이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環境共同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⑥ 文化와 意識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가 세계인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姿勢와 意識을 갖추어야 한다.

2. 에너지·資源 政策의 與件과 基本 方向

가. 世界 情勢 및 展望

1990년 걸프전쟁 이후 에너지·資源을 둘러싼 세계의 전반적인 정세는 겉으로는 安定基調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 그 裏面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需要 측면에서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특히 중국, 동구 국가 등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供給 측면에서는 국제 석유시장이 안정되어 전반적으로 平穩한 듯이 보이나 아직도 OPEC과 같은 자원보유국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資源 賦存地域의 偏在性, 賦存量의 有限性 및 生産의 非彈力性 등 세계 에너지시장이 지니는 本質的인 限界로 인해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66%는 中東에 집중되어 있으며 OPEC의 12개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집중도는 77%에 달한다. 또한 전세계적인 매장량은 1993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석유는 43년분, 천연가스는 59년분, 석탄은 240년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이 안된 추가 매장량을 감안하더라도 開途國 및 舊共產黨 國家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계산에 넣는다면 사용가능년수는 더욱 短縮될 것이다.

최근의 國際 石油市場 動向을 보면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조금씩 表面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1/4분기의 경우 석유수요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반면, 공급량은 OPEC의 減産 등으로 인해 수요증가를 따르지 못해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약 3~4배 정도 상승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石油禁輸措置 解除與 否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같은 유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地球의 溫暖化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94년 3월에 발효된 氣候變化協約은 세계 에너지수급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 溫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氣候變化協約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대문명과 경제사회발전의 基底를 형성해 온 化石에너지 主導의 세계 에너지수급체계에 근본적인 變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溫室가스 排出을 安定化하도록 義務化되어 있고,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新·再生 에너지 등 非化石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政策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開發途上國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나. 國內 與件 및 展望

세계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成長·輸出·投資 등 모든 면에서 活力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에는 8.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저조했던 설비투자도 23.3%에 이르는 伸張勢를 보였다. 또한 금년 1/4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9.9%를 기록하고, 수출은 31.7%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도 25.2%의 高成長勢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好轉되는 가운데, 『新경제 5個年計劃』이 내실있게 추진되었고, 아울러 기업인·근로자·국민 모두가 땀흘려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측면에서도 작년은 상당히 의미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消費 增加率이 8.2%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經濟成長率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에너지消費節約 施策의 효과 등으로 인해 에너지소비증가가 構造的인 안정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消費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으로서 10년후인 2005년의 총에너지수요는 현재의 약 1.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生活水準의 向上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에는 質的으로 많은 變化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快適한 環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産業의 環境關聯 負擔이 증대될 것이다.

② 국민들의 『삶의 質』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가스·전기 등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에너지로의 轉換이 더욱 빠른 속도로 促進될 전망이다.

③ WTO체제의 출범으로 경제의 개방화가 촉진되고 해외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제 우리 에너지산업도 그간 정부의 保護와 規制에서 벗어나 市場 經濟原理에 의한 競爭力強化에 매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④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이주의가 深化되고, 발전소·정유시설·석유비축시설·가스배관망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加重될 것이다.

⑤ 安全事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너그

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시설은 안전에 脆弱한 부문으로서 그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恐怖의 對象으로 여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에너지·資源 政策의 方向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資源 政策은 賦存資源이 빈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차질없이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 그리고 量的 擴大에 치중한 에너지·자원정책은 높은 石油依存度, 낮은 에너지이용효율, 에너지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시장기능의 위축 등 구조적인 脆弱性을 초래하게 되었다.

『新경제』의 에너지·資源 政策은 競爭促進과 需給安定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21세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産業에서 과감한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自生的인 競爭基盤을 구축하고, 에너지需給의 安定과 環境과의 調和에 역점을 두며, 국내외 자원을 效率的으로 開發해 나가면서, 安全管理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政策을 추진해 나가겠다.

가. 競爭促進을 指向하는 政策

앞으로 에너지·자원정책은 公益保護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개입만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간의 創意力과 活力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規制와 保護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민간의 參與와 創意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自生的인 成長基盤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① 그동안 석유수급의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위해 석유제품의 最高價格 告示와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등에 대한 許可制 등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등에 정부가 직접 介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격의 全面 自由化를 추진하는 동시에 석유산업에 대한 新規進入에 있어서도 企業의 自律에 맡김으로써 競爭을 통한 體質改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급속한 需要增加로 인해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도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競爭體制 導入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③ 그간 韓國電力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發電部門에 民間資本을 誘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長期電力需給計劃의 조정시에는 民資發電 사업을 확대하여 發電部門에 대한 民間資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效率性 제고를 위한 多角的인 方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나. 需給安定을 위한 政策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安定供給體制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와 아울러 需要管理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① 80년대 물가안정을 위한 緊縮政策으로 인해 電力, 港灣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電力의 경우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夏節期의 電力供給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電力의 안정공급을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需要豫測을 바탕으로 발전설비 등을 適期에 확충해 나가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立地確保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② 石油와 가스의 安定供給을 위해 導入先多邊化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정유시설·장거리송유관·가스배관망 등 공급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非常時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시설도 계속 증설하여 선진국수준의 비축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產油國과의 資源協力을 增進하기 위해 통상산업부가 주축이 되어 中東 產油國 등과 資源外交活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國際에너지機構(IEA) 가입을 추진하여 비상시에 선진소비국과 석유를 融通하는 등 에너지소비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③ 입지·투자재원 등의 제약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을 무한정 늘리기만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需要管理政策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가격의 수요관리 기능을 더욱 제고하고, 韓電·가스公社 등 에너지공급사들의 수요관리를 위한 투자확충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浪費要因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弘報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계속 노력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촉진 등 에너지利用 效率向上을 위한 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 여름의 경우 電力需給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電力豫備率을 7% 이상 유지함으로써 전력의 안정공급에 힘을 쏟을 것이다.

다. 環境과 調和를 이루는 政策

우리를 둘러싼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에너지(Energy)의 3E가 相互均衡을 이루게 함으로써 『持續可能한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지하는 동시에,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環境과 調和되는 에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新·再生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최대한 촉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총에너지의 3%를 太陽熱 등 新·再生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經濟性으로 인한 민간의 관심부족으로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는 못하다.

정부는 新·再生에너지政策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금년중에 서해안의 가로림만에 潮力發電所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新·再生에너지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先進國과의 技術交流를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다.

② 석탄·석유 등의 기존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淸淨에너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천연가스의 보급도 대폭 擴大해 나갈 계획이다.

③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련 비용부담을 에너지가격에 內在化함으로써 市場原理에 의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에너지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 費用化하여 이를 에너지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外部不經濟 효과를 줄여 나갈 것이다.

라. 效率的인 開發을 위한 政策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지속시키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國內資源을 效率的으로 개발하는 한편, 海外資源開發 등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① 급속히 수요가 줄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減産을 추진하되, 이와 아울러 代替産業 誘致 등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가칭) 『廢鑛地域開發促進 特別法』을 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② 『自然的인 資源貧國』에서 『人爲的인 資源富國』이 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 이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고 未修交國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자금의 확대, 지원절차의 簡素化 및 稅制상의 혜택 부여 등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③ 電力産業, 精油産業, 地域暖房事業 등도 그간 축적된 經驗과 技術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에너지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政策的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 安全을 最優先으로 하는 政策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安全管理制度를 전면 보강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삶의 質』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활의 안전이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적인 責務이기 때문이다.

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安全度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새로운 가스安全管理體系를 도입하여 시설점검 위주의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사업자가 韓國가스安全公社의 심사를 거쳐 개선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받도록 하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하

여는 安全診斷 등 외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最高經營者로 격상하고 체계개선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 配管管理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15km마다 1명의 安全點檢員을 채용토록 하는 한편, 配管管理의 효율화를 위해 2000년 이전까지 가스配管圖의 電算化를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安全技術研究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가스안전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재 실시중인 法定檢査외에 品質認證制를 도입하여 가스용품의 안전도 향상과 품질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②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수·화력발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週期的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유흥업소·시장 등 전기안전에 脆弱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合同으로 點檢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公信用있는 국제전문기관인 國際原子力機構(IAEA)와 美國原子力發電事業者協會 등에 의뢰해서 보다 심도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광산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업체별로 災害發生 정도에 따른 정부의 차등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금년부터는 廢鑛에 따른 地盤沈下 防止事業을 신규로 추진할 것이다.

4. 에너지·資源 業界의 役割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의 틀이 바뀌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남보다 한 발 앞서 변화하고 競爭力을 갖추는 기업

과 산업만이 熾烈한 經濟戰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의 에너지·資源産業도 경쟁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保護와 規制의 틀속에서 성장해 온 에너지·資源産業도 이제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도전을 뿌리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에너지·資源産業인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① 우선 과감한 경영과 서비스 혁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自生的인 成長基盤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인 여러분의 意識轉換과 더불어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하다.

② 우리 경제의 世界化를 위해 에너지·자원 산업인들도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進就的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가 96%에 달하는 에너지輸入依存度を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成果는 결국 에너지·자원산업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방대한 투자소요, 장기간의 투자회임, 높지 않은 성공확률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큰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크다는 것이 投資論의 평범한 진리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挑戰이 요청되고 있다.

③ 이제 에너지·자원 산업인들도 環境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 환경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逆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역할이 重大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우리의 에너지산업에게 하나의 挑戰이자 새로운 機會이므로 남보다 한발 앞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인 것

이다.

④ 에너지需要管理는 에너지시설의 입지와 투자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사의 經營效率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에너지공급사에서 수요관리에 先導的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을 개정하여 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을 義務化한 바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⑤ 작년말의 아현동 가스사고와 금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가스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스나 전기 등 고급에너지는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蓋然性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에너지 관련시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정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⑥ 에너지·資源産業에 있어 보다 協力的인 勞使關係의 定着을 위해 경영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人間經營을 실천하는 노력이 先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산업은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에 礎石이 된다는 신념아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模範的인 노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산업에 鑑이 되어 왔으며, 이 기회를 빌어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에너지産業은 公益性이 강하므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 産業平和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에너지·資源業界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세계화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世界一流國家』를 만들기 위한 前進의 대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